

김영한

송실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기독교문화연구소  
소장.

#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 - 사조적 측면에서 -

이 글은 96년 12월 9일 본회 청년연구모임 96세미나에서 행  
할 주제강연을 저자 자신이 미리 정리한 것이다.

## 1. 머 리 말

89년에 동구권의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90년대의 우리 사회에도 민주화  
가 진전되면서 이데올로기 시대가 퇴조하고 있다. 그와 함께 민중문화 시  
대가 쇠퇴하고 대중문화 시대가 열리고 있다. 80년대 초반의 억압과 권위  
의 시대에서는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일상성과 생활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여태까지는 진보 진영의 민중문화 운동에 의  
하여 대중문화와 민중문화는 철저히 대립적이고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었  
다. 대중문화는 제도권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산물이고 민중문화는 운동권  
의 저항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90년대 이

후의 정치 사회적 현실의 변화는 더 이상 이러한 이분법적 논리의 적합성을 정당화 시켜주지 않는다. 이제 대중문화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일상적 삶에 깊이 침투하게 되었고, 따라서 대중문화는 현대 사회의 대체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대중문화를 기독교 복음의 입장에서 조명하는 일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한국의 대중 문화를 복음적으로 변혁시켜 나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2. 대중 문화의 이해

대중문화란 대중들의 기호와 취향과 이해에 맞추어서 평준화된 예술과 작품과 사상을 말한다. 여기서는 더 이상 지배계급이 아니라 관객의 다수를 이루는 중하계층에 맞추어 매체의 내용을 꾸민다. 그리하여 예술의 방향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 1) 두 가지 비판적 견해

우선 대중문화에 대한 두 가지의 비판적 견해를 살펴보자.

첫째는 우파 문화비평가들의 견해이다. 19세기 순수 예술을 추구하는 귀족이나 엘리트들은 대중문화에서는 예술이나 문화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해되도록 그 내용이 평준화됨으로써 예술이 지닌 아름다움과 존엄성이 훼손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대중문화를 “저급문화”라고 표현하고 소수의 엘리트층을 위한 문화를 “고급문화”라고 불렀다. 20세기에 들어서 대중문화비평가들은 대중문화의 상업적 타락에 대하여 경고해 왔다. 대중문화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그로 인하여 일반대중들의 취향에 영합하는 동질적이고 규격화된 제품만이 양산된다고 비판한다.

둘째는 좌파문화비평가들의 견해이다. 이들은 대중문화가 대중의 “정치

로부터의 도피”를 부추기고, 기존의 계급적인 사회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에 따르면 대중문화란 노동계급의 수동성과 무관심을 조장하는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대중문화란 마르크스가 종교에 대하여 말한 것처럼 일종의 민중을 위한 아편이다.

그러나 대중문화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은 대중문화를 단순히 양적인 차원의 매스 컬처(mass culture)가 아닌 질적인 차원의 포퓰러 컬처(popular culture)로 이해하고 있다. 전자는 무차별한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의, 획일성, 저속성 등의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포퓰러 컬처에는 “일반적으로 확산되어 있으며 동의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인기 있다”와 “민주적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sup>1)</sup>

## 2) 고급문화의 대중화: 팝아트

이미 1992년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미국문화의 위기”란 특집을 실었다. 그 내용은 고급문화가 대중문화에 짓눌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고급문화의 전당인 케네디 센터가 92년도에 2백50만 달러의 적자를 냈으며 미국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맹은 “연주 공연사업”이 최악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sup>2)</sup> 미국의 한 예술 평론가는 이런 현상을 “관객의 죽음”이라고 묘사했다. 이에 반하여 마돈나의 음반이나 누드 사진집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할리우드의 영화 [쥬라기공원] 등은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하였다. 클래식 음반도 1910년대는 시장 점유율이 세계 음반시장의 85%를 차지했으나 1990년대에는 12%로 떨어졌고,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것도 CD의 대중화를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점차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고급문화의 대중화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문화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스티유 극장이 연간 1억달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문화의 대중화”를 내걸고 록컨서트를 허

1) 강준만, 『대중문화란 무엇인가?』, 『대중문화의 길과 속』, 한샘, 1994, 20쪽.

2) 조선일보, 1992년 11월 5일, 17면.

용키로 한 것이다. 또한 대중문화와 타협하려는 고급문화의 노력이 팝 아트(pop art)라는 새로운 영역을 탄생시켰다.

### 3) 영적 전투장인 대중문화

대중문화는 궁극적으로 그 주도권이 성령에 의해 정복되든가, 아니면 악령에 의해 정복되는 영적 전투의 영역이다. 사탄은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폭력과 살인, 성적 방종과 퇴폐, 파렴치와 무자비의 비인간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전통문화의 이름으로 무속과 점성술, 역술을, 현대사조라는 이름으로 뉴에이지 사상을 전달한다. 그러나 동일한 대중매체가 신앙인의 손에 의해 건강하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내용으로,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 창조와 전달의 매개체로 변화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대중문화는 하나님의 일반은총에 의해 보전되고 있는 인류의 문화창조 능력의 산물이다(창 1, 26 / 마 5, 45 / 롬 9, 22) 그러나 대중문화의 내용과 형식들은 타락한 인간의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한계 속에 있으므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 3. 한국 대중 문화의 현황

### 1) 뉴에이지 문화

1986년 [신과학 운동 연구회]에서 『신과학 운동』을 출판했다. 이 연구회는 그들 자신을 혼합적 신비주의 종교운동인 뉴에이지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새 시대의 과학”을 위한 운동으로서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편집자는 카프라의 저서 『물리학의 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새로운 세계관 운동으로서 현대 물리학인 상대성이론, 양자론, 열역학 제 2법칙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신과학운동이 현대물리학을 성과로 해서 제창하는 새로운 세계관이란 바로 뉴에이지 운동이 주창하는 힌두교, 불교, 도교, 점성술이 혼합된 신비적인 범신론적 세계관이다.

최근 우리사회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명상서적들은 주로 뉴에이지 운동서적들이다. 그러한 책들로는 크리슈나무르티(Krishnamurti)의 『자기로부터의 혁명』, 라즈니쉬(Rasneesh)의 『죽음과 예술』과 『배꼽』, 바바 하리 다스(Baba Hari Das)의 단편 『성자가 된 청소부』, 『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인도에서의 예수의 생애』, 『성서 밖의 예수』 등이 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자기로부터의 혁명』에서 인간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기존의 제도와 구조 속에 얽매어 있기 때문으로 보고 의식혁명을 통해서 자기 속의 신을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즈니쉬는 『죽음과 예술』에서 인간이 기존의 제도와 구조를 깨고 자신을 깨닫게 되면, 사람과 죽음을 뛰어 넘어 우주와 하나가 되는 영원불멸에 이르게 된다고 역설한다. 『배꼽』에서 그는 “그대를 볼 때 나는 신을 본다. 신 또한 이 세상의 일부다”라는 범신론을 주장하고 있다.

바바 하리 다스는 『성자가 된 청소부』에서 인도의 카스트 중에서 가장 낮은 노예계급 출신인 자반이란 청소부를 모델로 하여 기존사회의 구조와 사상이 인간성을 억압하여 인간의 참된 신적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우주 속에 존재하는 신적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뉴에이지 음악으로는 윈스턴(Wiston)의 피아노 곡인 [12월](December)이 있다. 이 곡은 인간에 잠재된 영적 세계를 일깨우고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영상매체에 의한 작품으로는 『사랑과 영혼』, 『아빠는 유명』 등이 있다. 『사랑과 영혼』이란 영화는 우리사회 청년들 사이에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 이 영화는 죽은 애인의 영혼이 등장하는 뉴에이지성의 영화이지만 남자과 여자 사이의 사랑을 워낙 아름답게 묘사했기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 많은 감동을 주었다. 『아빠는 유명』이란 영화도 영혼의 실재를 묘사하면서 초혼과 점성술을 등장시키고 있다.

## 2) 환생문화

최근 각종 출판물들을 통해 환생문화가 범람하고 있다. 정신 출판사의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전생요법』, 『티벳 사자의 서』, 『죽음 저편에서 보았다』, T 출판사의 『나는 아흔 여덟번 환생했다』, D 출판사의 『사후생』 그리고 S 출판사의 『영혼의 탐구』, 『삶이전의 삶』 등이다.

1995년에는 소설가 양귀자씨가 펴낸 두 남녀가 1천년 뒤인 오늘날 환생해 사랑을 나눈다는 즐거리를 가진 『천년의 사랑』이 국내의 인기를 끌었다.

국내 정신과 의사가 쓴 『김영우와 함께 전생여행』은 1996년 4월초 출간 이후 8월말까지 8만 부나 팔렸다고 한다. 교보, 신촌 문고 등 대형서점에 따르면 이들 환생에 관련된 책들은 하루 10여권씩 팔린다고 한다.

또한 공영방송인 서울방송이 1996년 전생과 환생을 주제로 한 드라마인 『8월이 신부』를 방영했다. 그 내용은 26년전 죽음 젊은 남녀가 환생해 자신도 모르는 이끌림에 의해 전생에 이루지 못한 사랑을 되찾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윤희의 고리를 통해 이어지는 사랑의 연속성을 싱그러운 젊음과 환상적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다.

영화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시공을 넘나드는 연인의 이야기를 다룬 『은행나무 침대』, 귀신과의 사랑을 다룬 『천녀유혼』 시리즈, 몇해 전 최대의 관객을 동원했던 『사랑과 영혼』, 영원히 죽지 않는 초인들의 세계를 다룬 『하이랜드』, 중국영화 『진용』이 환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다.

## 3) 개방적 성 문화

8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성문화는 한국사회에서 어두운 밀실에서나 행해지는 비밀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밀실의 성(性)은 영화 및 비디오를 타고 영상으로 표출된다. 영상매체와 함께 연극은 성개방에 앞장섰다. “미란다” 등 동성동의 연극가는 흥행을 목표로 벗

기기 경쟁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소설과 광고의 영향에 의해 신세대들의 성적 자유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 등에 등장하는 주인공에게 성이란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 중 하나에 불과하며 억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컴퓨터를 통한 포르노 게임이 만연하고 있다.

1996년 10월 현재 문화예술 분야의 외설물에 대한 당국의 제재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1996년 10월 26일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방송의 선정, 퇴폐, 외설을 이유로 제재를 받는 건수가 매년 100%씩 늘고 있다. 그 분야도 물론 드라마, 윤락문제를 상업적으로 포장한 다큐멘터리, 성적 농담으로 일관하는 토크쇼, 선정적인 동작의 가요프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영화 비디오의 경우 현재 제작·수입되는 영화의 약 70%가 에로 폭력물이다. 순수 무대예술을 지향하는 연극도 외설에 물든지 오래다. 대학로에 들어서면 시각을 자극하는 포스터와 전단 등이 유흥가를 방불케 하고 있으며 섹스를 묘사하는 연극은 불황이 없다. 음란도서에 있어서도 이성간의 성행위를 넘어서서 근친상간, 獸姦, 屍姦 등 비정상적이고 퇴폐적인 내용까지 등장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sup>1)</sup>

우리의 청소년들의 성의식 역시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 서로 사랑하면 혼전 순결을 유지하지 않아도 좋다는 견해가 전체 젊은 세대의 7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성의 개방의식은 무엇보다도 성을 상품화하는 대중매체의 영향에 기인한다. 대중매체를 통하여 성은 모든 상업광고에 등장하고 개방되었다. 그 결과 성욕망은 바로 소비욕망과 연결되어 사회의 성윤리를 해체시킴으로써 가정과 결혼과 건전한 남녀관계가 왜곡되고 깨뜨려진다.

1995년 10월 연세대에서 억압된 성의 해방을 주장하며 “날 강간하라”는 주제로 제 1회 [성정치 문화제]가 열렸다. 당시 의도는 성의 이면에 감춰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폭력을 고발하고 사적 영역의 성을 공적 영역으

1) “외설 홍수 심각”, 국민일보, 1996년 10월 26일 1면.

로 끌어내어 억압된 성을 해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제 행사 도중에 “아담의 정조대는 아담에게로”라는 구호가 나붙고 동성연애자들의 목소리가 고조되는 등 일반인들에게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다. 1996년 10월 제2회 성정치문화제가 “이구동성 동성이몽”(異口同性 同性異夢)이란 주제로 카톨릭대학인 서강대에서 개최되었다. 이 주제는 모든 사람이 획일화된 성을 이야기하는 현실을 “이구동성”이라고 말하고 획일화된 성문화에 반대해 다양성과 자유로운 성을 꿈꾸는 것을 “이성동몽”이라고 한다. 이 문화제는 첫날 “강간 속의 일상”이란 공개강좌를 통해 주변에 만연한 강간의 모습을 폭로한다. 성폭력 영화상영, 연세대 동성연애자 모임 “킵 투게더”를 이끌고 있는 서동진씨의 강연, 동성애 억압마당과 이성애 억압마당 사진전이 열린다.” 이들 80년대 운동권 후배들은 이제 사회계급적인 해방 대신에 모든 성규범으로부터의 자유에서 인간의 궁극적인 해방을 찾고 있다. 이를 동조하듯이 1995년 서울 지역의 주요대학 총학생회 후보들은 동성애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대 대학신문]이 조사한 서울대인의 의식 구조에 의하면 성경험 여부에 대해 남학생 28.4%, 여학생 12.9%가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혼전순결에 대해서도 남학생 46.5%, 여학생 45.4%가 “안 지켜도 된다”고 답변해 개방적인 성의식을 보여주고 있다.<sup>2)</sup>

#### 4) 노래문화 - 대중문화예술

90년대 초부터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의 이분법적 구조가 깨어지기 시작했다. 고급문화와 저급문화는 대중문화라는 이름으로 묶어지기 시작했다. 그 구체적인 현상이 바로 KBS의 [열린 음악회]이다. 여기서 세계적인 성악가 김영미와 록가수 김종서가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노래하는 광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1) '성, 해방부터', 동아일보, 1996년 9월 22일 17면 .

2) '개교 50년 [서울대인 의식조사]', 조선일보 1996년 10월 15일 46면.



우리의 청소년들은 고전적인 음악보다 리듬이 빨라지고 가사도 거의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록이나 랩 음악을 즐긴다. 그 이유는 주로 스트레스 해소에 있다.

### 5) 운동권의 이데올로기적 문화

80년대 운동권 청년학생들은 문화운동을 사회변혁의 도구로 여겼다. 이들이 민중문화운동을 주도했다. 이들은 군부 통치시대의 독재와 억압에 대항한다는 투쟁의 명분을 가졌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이들 가운데는 구소련에서 실체화된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서유럽의 신 마르크시즘의 문화 이론을 수용한 학생들도 있었다. 이들은 문화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라는 사회적 계층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전투의 장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은 문화를 사회와 역사변혁의 전략적 도구로 보고 있다.

80년대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깨진 후 종속이론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네오 마르크시즘이 소개되었다. 또한 85년을 즈음해서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85년말 경에는 학생운동 일각에서는 한국사회가 미국의 식민지라는 논리에 근거하여 반제와 반미투쟁을 중시하는 민족해방론(NL계)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86년 이후 주체사상 연구와 보급이 본격화되었다.

90년대 들어와 학생운동은 NL 계가 중심인 기존의 한총련 노선과 민중민주(PD)계의 온건한 노선의 두 가지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문민정부 시대에 들어와 주사파(NL)들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 그 결과 최근에는 학생운동이 통일운동에 전략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하여 수그러들었던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등장하고 학생들의 데모현장은 전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1996년 8월의 연세대 종합관 점거사태가 그 귀결이었다. 이들은 국가가 종교문화, 교육문화, 가족문화, 법률문화, 정치문화, 의사소통 문화를 통해서 대중들의 행동과 사고를 조종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에 대항하기 위해 대중적 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6) 컴퓨터 문화

정보화 시대에 들어와 컴퓨터는 초등학생때부터 익숙한 문화가 되었다. 중고교 학습은 주로 컴퓨터가 필요 없는 고전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중, 고등학생들은 컴퓨터를 통신과 오락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사용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음란하고 폭력적인 내용이 적지 않다. 이것이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 7) 텔레비전 및 비디오 문화

오늘날 대중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텔레비전과 비디오이다. 이것들은 입시준비에 지친 청소년이나 대학수업과 리포트작성의 부담감 속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이나 직장 일에 지친 기성세대들에게 가장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볼거리이다.

연속극이나 드라마는 우리 대중들의 가치관과 윤리관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대중매체는 매일 그리고 매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하여 새로운 유행과 정보를 전달하면서 우리의 정신을 세속적으로 세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보와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서 이러한 세속적 정보물결에 떠내려가고 있다. 이러한 대중문화는 세속적 인간본위적 가치를 주입함으로써 전통적인 신앙과 가치관을 와해시키고 있다.

그리고 미디어는 “숨은 설득자”로서 상품을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적 행위를 위해서도 고객을 설득하고 특정한 사회의식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비단 상품광고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방영되는 폭력이나

성욕을 자극하는 프로는 청소년과 분별력 없는 청취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

우리의 공영 TV방송은 반윤리성과 선정성으로 전통적인 가정윤리와 성윤리의 파괴에 앞장을 서고 있다.

SBS TV 주말 드라마 「부자유친」에서는 장인과 사위가 사이좋게 숨겨 놓은 아들을 하나씩 데리고 있다. 막내딸 김원희는 26살이나 연상인 아버지 짝 되는 흠아비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리고 흠아비의 아들은 그녀를 산 속으로 끌고 가 폭력을 휘두르고 옷을 벗어제치며 성폭행하는 듯한 장면이 이 드라마를 장식한다.

SBS TV 아침 드라마 「엘레지」에서는 얽히고 설키던 애정관계가 기어코 근친상간이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유부녀와 총각으로 만나 불륜관계에 있던 두 주인공이 결국 고아원에 버려진 남매였다는 것이다. SBS TV의 「야망의 불꽃」은 혼전 임신한 여주인공이 동창생의 약혼자를 빼앗아 내는 기형적인 상황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저질의 드라마이다.

MBC TV의 「아파트」는 미혼남녀의 한집동거가 버젓이 비춰지고 있고 KBS2 TV의 「개성시대」에서도 남자들의 바람기가 일상적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MBC TV의 「이혼하지 않는 이유」에서도 아내의 후배와 사랑에 빠지는 건축가, 무작정 동거에 들어가는 젊은 여성의 모습 등 비뚤어진 도덕관으로 덧칠되어 있다.<sup>1)</sup> 이러한 드라마에서 묘사되고 있는 가족 관계는 가족해체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시청자들의 정상적인 가치의식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 8) 신세대 문화: 입시지옥과 열광적 소비

오늘날 신세대인 청소년은 대중문화의 최고 소비층이다. 우리 전체인구

1) TV 드라마는 「불륜 백화점」, 조선일보, 1996년 3월 19일 27면.

「SBS 드라마 왜 이러나」, 국민일보, 1996년 3월 19일 21면.

의 30%를 차지하는 15-29세의 신세대 고객확보에 사활을 거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가전 제품만 하더라도 신세대 고객의 구매가 전체 매출액의 20-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의 8.1%이며 그들의 소비는 전체인구의 3%에 불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10대가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란 이들이 한국음반시장의 70%에 해당하는 구매력을 가진데서 알 수 있다. 93년에 음반 시장이 최대의 불경기를 맞았지만 10대를 주요 팬으로 하는 가수들의 음반인 신승훈의 “널 사랑하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김건모의 “핑계” 등은 단기간 내에 모두 1백만장 이상 팔렸다.

10대 청소년들이 대중문화의 가장 왕성한 소비자인 이유는 그들의 커진 구매력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10대들은 입시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고독하며 불안하다. 이들은 그 탈출구를 대중문화에서 찾는다.

#### 4. 대중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

##### 1) 올바른 성문화 정립

첫째, 이러한 탈규범화된 성문화에 대하여 기독교 청년학생들이 벌이고 있는 순결서약식은 성적으로 타락해 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모범이 된다. 기독교 청소년들이 단체로 순결서약 예배를 드리고 동료 청소년들에게 순결서약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이러한 성개방의 풍조 속에서 성의 신성, 결혼의 신성, 가정의 신성, 순결의 신성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기독교청년의 올바른 성문화 운동이다.

이러한 예로 서강대에서 열리는 두번째 [성정치 문화제]에 대항하여 서강대 기독교인 연합이 주최한 [밝은 성 문화제]를 들 수 있다. (패락, 그 이후의 고통들에 관하여)를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패락과 육체를 추구하는 성이 어떠한 악영향을 가져오는 지를 폭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이혼으로 인한 가정파괴, 성폭행, 어린이 매춘, 에이즈 등 성의 쾌락으로 인한 고통의 현장을 보여주는 '쾌락화된 성의 열매전시회' 낙태를 고발하는 "태아의 소리-나도 생일을 갖고 싶어요"와 에이즈예방 등의 비디오 상영행사를 통해 잘못된 성문화를 고발한다."

둘째, 교회와 사회단체는 성을 상품화하는 음란성의 비디오나 음반, 잡지, 영화나 상업광고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러한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일으켜야한다. 음란잡지나 음란 음반이나 비디오를 만드는 출판사나 음반사에 항의하고 음란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은 불매운동으로 맞서며 음란물을 차단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여론을 이끌어 가야한다.

셋째, 당국의 규제와 사법적 제재로는 외설문화를 막을 수 없다. 우리의 문화계가 자율적으로 논의를 진행시켜, 작가와 독자와 비평가와 출판인이 균형 잡힌 통제망을 구축하여 제대로 된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

## 2) 대중음악의 문제

젊은이들이 즐기는 대중음악의 문제는 가사와 리듬에서 나타나는 비기독교성에 있다. 이러한 음악이 폭력성, 음란성, 사단숭배, 약물중독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특정한 음악의 배경에는 마술적인 신비주의, 동양종교가 깔려 있으며 심지어 사단과 악마를 찬양하는 메시지가 배경음악이나 분장에 숨어 있는 음악도 있다. 예를 들면 존덴버는 힌두교에, 마이클 잭슨은 여호와 증인에 연루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블랙 세퍼드의 앨범인 악마들의 피의 축제를 보면 사단을 찬양하는 노래와 루시퍼가 등장한다. 그리고 "Who are you?"에서는 실제공연에서 동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려 놓은 다음, 사람을 눕혀 놓고 마술과 신비적 분위기 속에서 사단 숭배에 빠지게 한다.

1) "순결부터, 성", 동아일보, 1996년 9월 22일 17면.

오늘날 팝음악의 거의 90%가 섹스를 묘사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1985년에 출판한 레코드의 등급에 의하면 팝음악의 내용으로 노골적인 성묘사, 마약복용, 음주조장, 마법, 사단 숭배, 폭력찬미 등이 있다. 상당수의 팝음악들이 폭력을 찬미하거나 자살을 권장하거나 반종교적이고 반도덕적 가사를 담고 있으며 마약복용을 예찬하고 있다.<sup>1)</sup> 록음악도 끊임없는 리듬, 낮은 주파수의 베이스와 기타의 진동과 드럼의 몰아치는 리듬에 의하여 젊은이들의 감정을 발산해주기 때문에 신세대의 음악으로 환영받는다.

클래식과 록음악의 접목으로 출발한 뉴에이지 음악은 인간을 신적 위치에 끌어올리는 범신론적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가볍게 들으면 편안한 느낌을 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 음악에 빠져들고 일종의 종교적 경험을 하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팝음악이나 록 음악의 형식과 내용이 모두 악마적이고 비기독교적이라고 간주될 수는 없다. 복음적 내용이나 정신에 의해 새로운 삶의 여러 측면을 읊 노래하는 대중음악들이 창작되고 공연될 수 있다.

### 3) 제3의 학생운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

기독교 청년들은 오늘날 민중해방 계열과 민중민주 계열에 대하여 제 3의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제3의 목소리란 좌파나 우파의 중간이 아니라 기독교적 정체성에 입각한 독자적인 목소리를 말한다. 이것은 배타성이거나 편협성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한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도주의 입장을 가져야 한다. 민족전체를 위하면서도 인류전체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과제 설정에 있어서 학생들이 아직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1) 송인수, '청소년 문화의 실태와 문제점', 『현장교사가 본 청소년문화』, 1996년1월29일, 기독교유리실천운동, 18-19쪽.

큰 통일 문제보다는 우리사회에 있는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눈을 돌리고 저들의 인간적 삶의 권리와 사회적 삶의 질의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 동시에 학생들은 시야를 넓혀서 우리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이웃과 세계를 바라보고 평화와 정의 실현, 창조보전을 위한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 4) 대중문화의 감시자, 안내자와 생산자의 역할

기독교청년들은 오늘 대중문화에 대한 소비자일 뿐 아니라, 감시자, 안내자,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청년들은 단순히 대중문화의 소비자로 그쳐서는 안된다. 그것은 이 세상에 영합하거나 세속의 풍습에 따라서 사는 자세이다. 문화변혁자로서 기독교청년들은 대중문화의 저질성, 비윤리성, 비인도성, 반기독교성을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세상인들에게 이러한 대중문화의 현황에 대하여 올바른 안내를 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문화소비자운동을 주도하면서 저질의 대중문화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불건전한 프로그램에 대하여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건강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기윤실에서 하고 있는 방송 모니터운동, IVF학사회에서 하고 있는 매스미디어연구 등을 교회대학청년회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모니터 운동도 출판, 신문, 잡지, 영화, 오락, 소설, 미술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중들에게 적합한 문화를 생산해 내어야 한다. 각자가 음악, 미술, 소설, 시, 문학, 체육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건전한 대중문화가 생산되도록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

#### 5) 첨단 기술문화의 기독교적 이용

몇 년 앞으로 다가온 21세기의 사회는 첨단 기술문화에 의한 멀티 미디어의 시대이다. 여태까지 우리는 신문,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팩스 등의

매체들을 독립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제는 멀티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전달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21세기의 기술문화를 상징하는 멀티미디어를 통해 자료의 수집, 검색, 편집, 출판, 전달, 교환의 과정에 혁명적으로 새롭고 효율적인 수단을 얻게 되었다. 대중문화가 이러한 멀티미디어에 전달되는 상황에서 기독교의 복음과 가치관 역시 새로운 매체를 통해 선포되고 전달되어야 한다. 교회는 멀티미디어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년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한다.

### 6)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는 섬김과 나눔의 문화 형성

궁극적으로 기독교적 문화가 지향하는 바는 쾌락지향적 문화가 아닌 약자와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줄이는 공동체적 문화를 만드는 데 있다. 오늘날 대중문화는 즐길 거리를 차는 사람들의 쾌락을 충족시키는 상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쾌락을 즐기는 삶이 아닌 성령을 따르는 삶, 즉 절제와 섬김과 나눔의 삶을 가르치고 있다. 소외된 상황에 있는 이들 - 최저 빈곤층, 신체 장애인, 가출 청소년,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 불치병 환자,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외국인 근로자, 수감자 -이 함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공동체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 청년들의 과제이다.

## 5. 맺 음 말

대중문화는 우리가 매일 마시고 들이키는 공기와 물과 같다. 신자 역시 교회예배는 일주일에 한두번씩 드리나 대중매체는 매일 읽고 보고 듣는다. 공기와 물이 깨끗해야 우리의 몸의 건강이 유지되듯이 대중문화가 깨끗하고 건강하면 그만큼 우리의 영혼과 삶이 건강하고 깨끗해지는 것이다.

대중문화는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창1, 26)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나 인류의 문화적 능력은 타락 이후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하나님 없는 문화를 생산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대중 문화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신물이면서도 우리의 인간성과 삶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바로 여기에 대중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진단과 대안이 요구된다. 누구보다도 기독 청년들이 한국 대중문화의 소용돌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창조적이고 생명력있는 기독교적 문화변혁을 이룩할 때 한국 기독교와 교회의 앞날은 밝다. □

대중문화는 궁극적으로 그 주도권이 성령에 의해 정복 되든가, 아니면 악령에 의해 정복되는 영적 전투의 영역이다. 동일한 대중매체가 신앙인의 손에 의해 건강하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내용으로,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 창조와 전달의 매개체로 변화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대중문화는 하나님의 일반은총에 의해 보전되고 있는 인류의 문화창조 능력의 산물이다. 그러나 대중문화의 내용과 형식들은 타락한 인간의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한계 속에 있으므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 본문 중에서 -